

# 學校 圖書館의 움직임

—馬山中學校圖書館을 中心하여—

文 璣 榮

## 1. 序 論

“學校圖書館은 學校의 心臟이다” 또는 “現代教育은 學校圖書館에 依하여 代表된다”는 말들은 學校圖書館이 現代教育에 있어서 무거운 比重을 알리 주는 것이고 學習方法의 改善, 學習活動의 能力差 指導, 그리고 學生들의 個性伸張, 市民性的 養成, 圖書館의 利用指導, 또 餘暇指導等으로 學生들이 自發的인 學習態度를 기르도록 힘 써야한다.

특히 一年동안에 十餘卷의 教科書만으로 學生들의 學習活動을 돕고 있는 우리나라의 中高等學校의 實情에서 考察해 볼 때, 너무나 絕望的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教科書를 中心하여 傳達式 授業方法을 止揚하고 實驗實習과 教科書 以外的 많은 學習資料에 依한 視覺으로 自覺自習하는 터전이 바로 學校圖書館인데 學生들의 集團思考에 依한 學習活動을 할 수 있는 施設과 環境이 切實히 要望되는 바이다.

그러므로 本校에서는 昨年(1962年) 4월에 不過 16坪되는 圖書館로 出發하여서 今年 5月29日에는 完全한 圖書館으로 發展하였는데 그 經緯를 잠깐 紹介하여 보기로 한다.

## 2. 圖書室로서 出發

16坪되는 방에 書架(그것도 書類函)에다가 不過 1,600餘卷의 藏書만 配架하여

아침 7시에 문이 열리면 24學級(1,500餘名) 學生들은 貸出하러 圖書室로 몰려 들어와서 希望대로 貸出을 하여서 各學級教室에서 閱覽을 하게 마련이다.

約 一時間동안 貸出을 하는데 平均 200餘名이 貸出을 하지만 午後 6時까지 返納을 해야만 한다. 勿論 授業時間에 授業을 않으므로 하여 讀書에 莫大한 支障을 갖는 것은 두말할 必要조차 없었다.

單只 讀書에만 主力을 加하게 되니까 學校教育(授業과 關聯)面과는 直接的인 關係가 적을 뿐더러 大概의 讀書 傾向은 小說나부라기를 讀書하는 것에 不過하였다.

특히 圖書館이 校長室과 敎務室과의 사이에 位置하여져 있었기 때문에 아침 7시나 下午 5時쯤되며는 長蛇陣으로서 學校가 떠나갈듯이 시끄러운 것도 말 할 必要조차 없었다.

이를 契機로하여 本校에서는 圖書館의 緊急必要性을 認識하게 되어 圖書館을 세울 計劃이 앞서지게 된 것이다.

## 3. 圖書館 開館

1963學年度에 들어서 慶尙南道로부터 本校가 圖書館示範學校로 指名을 받게 되어서는 本格的으로 圖書館設立에 이바지하게 되어 敎職員과 在學生들은 一人一卷의 蒐集運動이 校內에서 展開되는가 하면 市內 各書店에서도 幾百卷의 寄贈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再建學生會에서도 學生들 自身이 圖書館의 必要性을 強力히 부르짖고 同時에 本校期成會에서도 앞장서게 되어 圖書館의 創設은 그야말로 霎時間에 實現을 보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現代規格인 圖書館施設의 備品을 마련하여 現代式 閱覽席 156席을 비롯하여 그에 所要되는 備品一切를 갖추게 되었으며 그 當時의 藏書量은 3406卷으로서 지난 5月29日 道獎學士 臨席下에 地方有志 各機關長 來賓多數 參席裡에 開館의 五色테이프를 끊게 된 것이다.

#### 4. 圖書館 示範學校 公開發表會

今年度에는 本校가 慶尙南道 國語科(作文) 特殊研究指定學校로서 6月27日 그의 中間發表會가 開催되기 때문에 道로부터 9月以後에 圖書館 示範學校 公開發表를 하게 된 것을 앞당겨서 當日 6月27일에 아울러 公開發表會도 갖기로 하였다.

그때의 藏書量은 4007卷으로 늘어졌으며 非圖書資料 1300餘點이 備置되었고 圖書館의 넓이는 75.6坪인데 慶南의 敎職員 約 300名이 參加하여 圖書館의 인모저모를 구경시켰다.

#### 5. 施 設

圖書館施設로서는 6人用 閱覽用 책상 26個, 椅子 156席, 카운터(5DU), 북추력 新聞架, 展示板, 展示架, 雜誌架, 書架 버티칼 파일 카비넷(2개) 辭典臺 目錄箱子(2개) 테블(2개) 등의 備品이 마련 되어 있으며 그 外에도 156名分の 所持品臺를 비롯하여 黑板 時計 小型鵬寫板 書類箱子(2개) 洗面器等의 備品이 준비하게 갖추어져 있다.

但 視聽覺敎材는 別途로 本校에서는 分離시켜 두었으나 때에 따라서는 本圖書館

에서 映寫機를 돌리기때문에 暗幕裝置는 되어 있다.

#### 6. 閱覽關係

本校圖書館은 慶南道內에서는 第一 큰 規模라고 여길뿐더러 唯一한 完全開架制 閱覽法을 適用하였다.

아침 7시부터 下午 8시까지 圖書館의 門이 활짝 열려져 있는데, 아침 6시가 조금 넘으면 출을 이어 서 있는 現象임으로 圖書館이 아직도 좁은 感이 없지는 않다.

筆記道具 筆記帳 敎科書 以外는 閱覽室로 무엇이든지 運搬 못하게 마련인데 그 以外의 것은 所持品臺에 마껴둔다. 勿論 館內閱覽時는 카아드도 必要하지 않고 自由自在로 보고싶은 책은 마음대로 自己 손수 書架에서 直接 빼어 볼 수 있고 그 책을 閱覽한 後에도 圖書館員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自身이 뽑은 그 자리에 손수 꽂게 마련이다. 어느程度서투르게 보는 學生도 間或 있었지만 요지음은 大概가 正確히 찾아주고 있다.

#### 7. 購入希望圖書簿와 質問紙

學生들의 敎養面 常識 그리고 參考書等으로 學生들에게 必要로하는 藏書가 주로 備置되어 있지만 그래도 自己들의 공부에 是 不足한 느낌이 없지는 않는 模樣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新刊圖書라고 해서 모조리 購入할 수도 없고 또 設使 購入한 책이 죄다 學生들 自身이 꼭 要求되며 必要로 하는 책인지도 몰라서 本校圖書館에 없는 책이 必要하면 別途로 마련 되어있는 購入希望圖書簿에 책명과 出版社名等을 記載시켜서 圖書選擇委員들과 議論하여 購入시켜 學生들의 圖書館利用에 最大의 便宜를 圖謀해 주며 또 家庭에서 나 其他社會에서 보고 듣는 가운데 모로

는 점이 發見될 때에는 圖書委員들을 움직이게 한다든지 司書教師에게 問議를 하여서 그 問題를 풀게 하지만 別途로 質問紙가 恒時 마련되어 있어서 그 質問에 應하되 司書의 힘으로 못 풀게 되면 그 擔當教師의 助力 或은 外部의 힘을 빌려서까지 解答을 하여주고 있다.

### 8. 圖書委員의 活動

全校 24學級으로서 每學級 2名, 그러나 48名의 圖書委員이 있는데 每日 4名의 委員으로서 充分히 活動을 하고 있다. 그리고 火曜日에는 交代로 約 2時間씩 12名 勤務케 하여 修理等に 努力하니 圖書의 購入부터 配架에 이르기까지에는 別支障이 招來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全校學生 即 圖書館을 出入하는 學生들이 모두 圖書館의 利用을 圓滿히 해주는 同時에 圖書委員들의 指示를 잘 지켜주기때문에 이와같이 圖書委員들의 일은 自然히 덜게 되어있다.

그러니까 圖書委員選定은 學級長보다 높은 位置에서 選拔해야 된다고 여긴다.

### 9. 非圖書資料의 利用

教育課程에 關聯된 것, 學生들의 娛樂 및 인포오메이손상의 興味나 慾求를 充足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圖書館이나 各教室에서 展示하여 興味와 鑑賞力을 刺戟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등을 新聞에서 클리핑한 것이라든지 카다로꾸, 판프렛, 그림 葉書등을 一定한 規格으로 蠶紙에 대어서 分類하여 카비넷에 排列하여 두었는데 그 야말로 살아있는 教育의 바윗침을 하고있다. 直接 이 資料가 一線에 까지 波及되어서 視覺의으로 直時에 效果를 갖게끔하고 있다. 畧은 3000點을 今年度에 目標로 하고 있지만 現在까지 1300餘點에 不過하다.

勿論 活用の 節次에 있어서 잘 連結性이 없어 圓滿하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차

차 좋은 方向으로 이끌려서 只今은 제법 좋은 成果를 거두고 있다.

資料蒐集에 있어서는 敎職員自身的의 學科擔當科目을 爲主로 하여서 蒐集하여 分類하였다. 그 외에도 資料는 많아 여러 方向으로부터 求해오고 돈은 한푼도 들여서 購入하지는 않았다.

### 10. 參考閱覽室

參考圖書室(Reference Room)은 우리나라와 外國의 各科別 그리고 各辭典 年鑑 統計 또 地圖等的 參考文獻을 備置시켰는데 各科目의 單元學習 自覺自習에 있어서 疑問되는 問題等を 解決하는 곳으로서 文獻만은 누구없이 館外貸出은 許用되지 않는다.

### 11. 其 他

#### ① 學校圖書館委員會

各敎科課程과 學校圖書館을 直結하기爲하여서 本校에서는 各部(敎務·研究·指導 再建)의 主任敎師와 校長, 校監, 司書敎師로써 構成된 委員會가 있다. 每月 定期的으로 圖書館運營方針等を 세우게 되어있다.

#### ② 地域社會의 圖書館

一年에 二回에 걸쳐서 學父兄 母姉님들에게 約 一週日씩 本校圖書館에 出入시켜서 本圖書館의 藏書를 閱覽시키는 機會를 준다. 그리하여서 地域的인 社會에서도 圖書館의 必要性을 認識시키고 아울러 學校와 家庭과의 關係를 知的面과 敎養面等으로 紐帶를 맺게 한다.

### 12. 結 論

完全開館이 늦었기 때문에 將來 어떤 影響이 미쳐질지는 모르지만 本校圖書館의 힘을 입어서 馬中學生의 將來가 屬望된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바라며 勿論 進學方面 社會進出에도 “馬中圖書館”의 惠澤으로……라는 말을 남길때까지 움직일 것으로 믿는다.

(馬山中學校圖書館 司書敎師) 謹